

《黃帝內經》의 標本 의미에 대한 分析的 研究

金東寬 · 金重漢

東義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ABSTRACT

This study on the conception of Pyo Bon expressed in Hwang Jae Nai Kyung was summarized as follows:

1. The conception of Pyo Bon in the Yi Jung Byun Gi Lon(移精變氣論) and Tang Eak Yo Le Lon(湯液醪醴論) of So Moon(素問) is that Pyo means the doctor and Bon means the disease. The Pyo Bon of this chapter has a meaning of time, namely first and last.
2. The conception of Pyo Bon in the Soo Yul Hyul Lon(水熱穴論) of So Moon is that Pyo means the lung and Bon means the kidney. The Pyo Bon of this chapter has a meaning of space, namely the upper and lower sides.
3. The conception of Pyo Bon in the Pyo Bon Byung Jun Lon(標本病傳論) of So Moon is that Pyo means a earlier disease and Bon means a later disease. The Pyo Bon of this chapter has a meaning of time, namely first and last.
4. The conception of Pyo Bon in the Chun Won Gi Dae Lon(天元紀大論), Yug Mi Ji Dae Lon(六微旨大論) and Ji Jin Yo Dae Lon(至真要大論) of So Moon is that Pyo means a Yug Gi(六氣), namely wind, cold, heat, dampness, dryness, fire and Bon means a Sam Eum Sam Yang(三陰三陽). The Pyo Bon of this chapter includes a meaning of time and space.
5. The conception of Pyo Bon in the Sa Jun(師傳) of Yung Chu(靈樞) is that Pyo means a inside of the body and Bon means a outside of the body. The Pyo Bon of this chapter a meaning of space, namely the inside and outside.
6. The conception of Pyo Bon in the Wi Gi(衛氣) of Yung Chu is that Pyo means the end of limbs and Bon means the part of head, face, chest, abdomen, back. The Pyo Bon of this chapter has a meaning of space, namely center and circumference.

Key Word : Pyo Bon(標本), Yug Gi(六氣), Sam Eum Sam Yang(三陰三陽).

접 수 : 2000년 4월 12일

채 택 : 2000년 5월 5일

교신 저자 : 김동관,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의사학교실

(051-890-1566)

I. 緒論

標本은 東洋古典 《管子·霸言》에서 “大本而小標”¹⁾라 하고, 《淮南子》에서 “物有相同, 本標相應”²⁾이라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許慎의 《說文解字》에서 本은 “木下曰本, 從木一其下”라 하고, 標는 “木杪末也”³⁾라 하여 원 뜻은 本은 아래 부위인 나무의 뿌리요, 標는 윗 부위인 나무의 가지를 뜻하였으니, 標本은 곧 本末의 意味와 같다고 하겠다.

標本은 陰陽의 概念과 같이 統一된 하나의 個體에 대하여 相對的으로 兩分하여 보는 不特定한 抽象概念이다.

陰陽의 概念이 廣大하여 無所不包하다면 標本은 단지 陰陽의 範疇에 속하는 하나의 개념으로, 주로 本末, 上下, 內外, 先後 등의 意味로 사용된다.

《大學》에서 “物有本末, 事有終始, 知所先後, 則近道矣”⁴⁾라 하여 物의 本末과 事의 終始를 알아서 先後할 바를 안다면 道理를 體得한 聖賢에 가깝다 하였듯이, 《內經》에서도 「至眞要大論」에서 “夫標本之道, 要而博, 小而大, 可以言一而知百病之害 … 察本與標, 氣可令調”라 하였고, 「標本病傳論」에서 “知標本者, 萬舉萬當, 不知標本, 是謂妄行”이라 하여 標本의 道理는 簡要하면서 博大한데, 이를 잘 把握하는 것이 治療의 關鍵이 됨을 강조하였다.

本 論文은 治療에 大綱이 되는 標本의

意味를 把握하기 위하여 《內經》의 여러篇에 나타난 標本을 조사한 후 《內經》의 經文과 歷代 醫家들의 注釋을 參考하여 먼저 意味에 따라서 大別하고 그 具體的인 意味와 그 意義를 밝혔으며, 그리고 이를 다시 時·空間 觀點으로 나누어 보았고, 끝으로 注釋家들이 말한 經外의 意味에 대하여 分析, 研究한 것이다.

II. 研究方法 및 資料

本 論文의 敘述은 《內經》에서 標本의 意味를 類대로 分類한 후 適合한 小題를 붙이고, 그 다음에 原文, 다음에 代表의 歷代醫家의 注釋을 記載하였고, 끝에다 原文과 注釋을 分析 研究한 바를 論說하였다.

가. 原文은 王冰本을 基準으로 삼았다.

나. 各家注의 서술은 歷代 注釋家 中에 時代別로 다음과 같이 記載하였다. 즉 楊上善의 《黃帝內經太素》⁹⁾, 王冰의 《黃帝內經素問》¹²⁾, 馬蒔의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⁷⁾, 吳崑의 《素問吳注》¹⁰⁾, 張介賓의 《類經》¹⁴⁾, 張志聰의 《素問集註》¹⁷⁾, 高士宗의 《黃帝素問直解》⁵⁾, 黃元御의 《素問縣解》, 《靈樞懸解》¹⁹⁾, 張琦의 《素問釋義》¹⁵⁾ 등을 근거로 하여 提示하였다.

다. 各家注 中 注釋이 없는 것은 “缺” 혹은 “未載”라 表示하였다.

라. 本 論文에 사용된 各種 符號는 意味上 分類에 ‘1’, 原文에 ‘①’, 各家注에 ‘(1)’, 引用文獻에 ‘《》’, 引用篇名에 ‘「」’ 등이며, 脚注는 ‘1), 2), 3), …’의 一連番號로, 圖表는 [표 1]로 表示하였다.

-
- 1) 李相玉, 《新完釋 管子》, 서울, 明文堂, 1985, p.225
 - 2) 劉文典, 《淮南子集解》, 台北, 文史哲出版社, 1985, p.54
 - 3) 許慎, 《說文解字》, 香港, 中華書局, 1985, pp.118~119
 - 4) 成百曉, 《懸吐完譯 大學》, 中庸集注,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1, p.24

III. 黃帝內經에서의 標本

《黃帝內經》에서 '標本'은 10篇에서 나타나는데, 그 意味로 보면 大略 6가지 意味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즉 痘과 醫로서의 意味, 水腫病에 있어서 腎과 肺로서의 意味, 先病과 後病으로서의 意味, 天地運氣에 있어서 六氣와 三陰三陽으로서의 意味, 氣의 內外活動部位로서의 意味, 十二經脈의 分布에 따른 四末과 頭面·胸腹部로서의 意味 등이다. 이에 대하여 具體的으로 살펴보자 한다.

III - 1. 意味上으로 分類한 標本의 意味

1. 痘과 醫로서의 意味

病과 醫로서 意味는 《素問·移精變氣論》과 「湯液醪醴論」에 나온다. 그 原文과 이에 대한 代表的인 歷代注釋家의 見解는 다음과 같다.

「移精變氣論 第十三篇」

“中古之治病 至而治之 湯液十日 以去八風五痺之病 十日不已 治以草蘇草荄之枝 本末爲助 標本已得 邪氣乃服”^①

“逆從到行 標本不得 亡神失國”^②

「湯液醪醴論 第十四篇」

“岐伯曰 痘爲本 工爲標 標本不得 邪氣不服 此之謂也”^③

【各家注】

(1) 楊上善

①, ② 缺

③ 若本無病 則亦無療方 故知有病爲本然後設工 是則以病爲本 以工爲末也 標末也 風寒暑濕所生之病以爲本也 工之所用鍼石湯藥以爲標也 故病與工相契當者 無大而

不愈 若工病不相符者 雖微而不遣 故曰不得邪不服也⁵⁾

(2) 王冰

① 標本已得 邪氣乃服者 言工人與病主療相應 則邪氣率服而隨時順也 「湯液醪醴論」曰 痘爲本 工爲標 標本不得 邪氣不服此之謂主療不相應也 或謂取「標本論」末云鍼也⁶⁾

② 標本不得 謂工病失宜⁷⁾

③ 言醫與病不相得也 然工人 或親戚兄弟 該明 情疑勿用 工先備識 不謂知方 鍼艾之妙靡容 藥石之攻匪預 如是則道雖昭著 萬舉萬全 痘不許治 欲奚爲療 「五藏別論」曰 拘於鬼神者 不可與言至德 惡於鍼石者 不可與言至巧 痘不許治者 痘必不治 治之無功此皆謂工病不相得 邪氣不賓服也 豈惟鍼艾之有惡哉 藥不亦有之矣⁸⁾

(3) 馬蒔

① 「湯液醪醴論」曰 痘爲本 工爲標 標本不得 邪氣不服 蓋有病人而後用醫工 故亦以本標名之 今醫藥合其病情 則標得本而邪氣服矣⁹⁾

② 未載

③ 蓋病者爲本 醫工爲標 始時醫工不得病者之情 如本篇嗜欲無窮之謂 痘者不得醫工之能 如前篇不本四時等義之謂所以邪氣不服 而病至於成也 由此觀之則病者 不可不預而醫者不可不慎 不慮其始 而徒悔於終奚蓋哉¹⁰⁾

5)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서울, 圖書出版社, 1993, p.336

6) 王冰, 《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96

7) 前揭書, p.97

8) 前揭書, p.99

9)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97

(4) 吳崑

① 痘有標有本 受病者爲本 傳變者爲標
既得其本 又得其標 則邪氣未有不服者也¹¹⁾

② 痘有標有本 不得 謂不審其標本而失之也¹²⁾

③ 天下事物 皆有標本 以病者與醫者論之 則病者爲本 醫者爲標 必病者與醫者相得 則邪氣易服 若不相得 則邪氣難服¹³⁾

(5) 張介賓

① 痘原爲本 痘變爲標 得其標本 邪无不服¹⁴⁾

② 標本不得 舍本趨末也¹⁵⁾

③ 痘必得醫而後愈 故病爲本 工爲標 然必病與醫相得 則情能相浹 才能勝任 庶乎得濟而病無不愈 惟是用者未必良 良者未必用 是爲標本不相得 不相得則邪氣不能平服 而病之不愈者以此也 又如「五藏別論」曰 拘于鬼神者 不可與言至德 惡於鍼石者 不可與言至巧 痘不許治者 痘必不治 治之無功矣 又如脈色類不失人情詳按 皆標本不得之謂¹⁶⁾

(6) 張志聰

① 此言病有標本 而草有本末也 蘇 莖也 莖 根也 草蘇之枝 莖之枝傍也 草荄之枝 根之傍根也 蓋以蘇荄爲本 而傍枝爲末 五脾者 五藏之脾也 五藏 有經俞之外榮 有筋脈皮毛骨肉之外合 是五藏爲本 而經俞筋骨爲標也 草生五味以養五藏也 是以五藏有疾 則以蘇荄治之 如邪在經脈之外合者 則以草蘇 草荄之枝治之 是以本治本而以末治標也 心

10) 前揭書, p.100

11) 吳崑, 《黃帝內經素問吳注評釋》,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6, p.79

12) 前揭書, p.80

13) 前揭書, p.82

14) 張介賓, 《類經》, 서울, 成輔社, 1982, p.356

15) 前揭書, p.358

16) 前揭書, p.350

肺居上爲陽 而治之草蘇 是本乎上者親上也 肝腎居下爲陰 而治以草荄 是本乎下者親下也 以草之本末爲助 而病之標本以得 又何患邪氣之不服哉 此中古用藥之有法也¹⁷⁾

② 標本不得者 不知病之標本 而以本末爲助也¹⁸⁾

③ 伯言病爲本 工爲標 蓋以工之治法爲標也¹⁹⁾

(7) 高士宗

① 標本已得 邪氣乃服者 「湯液醪醴論」曰 痘爲本 工爲標 標本不得 邪氣不服 今治病得宜 故標本已得 邪氣乃服²⁰⁾

② 若逆從到行 則工與病違 故標本不得²¹⁾

③ 身有病 則病爲本 醫工治之 則工爲標 標本相得 則病可愈 標本不得 邪氣則不服 邪氣不服 是以不愈²²⁾

(8) 黃元御 : 未載

(9) 張琦 : 未載

【考察】

이상의 「移精變氣論」 및 「湯液醪醴論」에서 論한 標本에 대한 經文과 注釋가들의 見解를 살펴보면 楊上善, 王冰, 馬蒔, 高士宗, 張琦는 「湯液醪醴論」의 “病爲本, 工爲標”的 經文을 근거로 하여 本은 痘 혹은 痘者를 指稱하였고, 標는 醫 혹은 治病의 수단인 鍼石 · 湯藥을 指稱하였다.

「移精變氣論」에서 標本을 달리 解釋한 注釋家는 吳崑, 張介賓, 張志聰이 있다.

17) 張志聰, 《素問集註》,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112

18) 前揭書, p.113

19) 前揭書, p.116

20) 高士宗, 《黃帝素問直解》,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82, p.105

21) 前揭書, p.106

22) 前揭書, p.110

즉 吳崑은 “受病者爲本, 傳變者爲標”라 하여 病을 받은 곳이 本이 되고 傳變하는 것은 標가 된다고 보았고, 張介賓은 “病原爲本, 痘變爲標”라 하여 痘原을 本으로 보고 痘變을 標로 보았는데 이는 「標本病傳論」에서 痘의 先後로써 標本을 나눈 意味로써 해석한 것이다. 張志聰은 “病有標本, 而草木有本末, 五藏爲本, 而經俞筋骨爲標, 蘇荄爲本, 而傍枝爲末”라 하여 痘에 있어서는 五藏은 本이 되고 經俞筋骨은 標가 되며, 草에 있어서는 根莖은 本이 되고 枝葉은 末(標)이 된다 하였다.

그러나 「移精變氣論」과 「湯液醪醴論」에서 標本의 意味는 두 篇이 각기 “標本已得, 邪氣乃服”, “標本不得, 邪氣不服”이라 하여 標本과 邪氣의 服, 不服 關係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두 篇의 標本의 意味는 같다고 보아야 마땅하다. 즉 「湯液醪醴論」에서 “病爲本, 工爲標”이라고 한 經文이 곧 注釋에 該當한다. 吳崑, 張介賓, 張志聰은 「移精變氣論」에서 標本의 意味를 經外의 뜻으로 擴充해서 說明했다고 할 수 있으나 本兩篇에서 말하는 標本의 意味는 아니라 고 본다.

다음은 痘을 本이라 하고 工을 標라고 한 까닭에 대하여 고찰해보면 이는 楊上善이 잘 밝혀 놓았는데 즉 “만약 본래 痘이 없다면 또한 治療의 方法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痘이 있는 것이 本이 된 이후에 工의 治療가 배풀어지니 이 때문에 痘을 本으로 삼았고 工을 標로 삼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여 痘이 우선이니 本이 되고, 治療는 뒤에 이루어지니 醫가 標가 된다고 하였다.

本篇에서의 標本의 意義는 다음과 같다.
標本相得과 不相得에 따라 疾病의 治療

與否가 決定되기 때문에, 醫師의 立場에서 보면 王冰이 “五藏別論”曰, 拘於鬼神者, 不可與言至德, 惡於鍼石者, 不可與言至巧, 痘不許治者, 痘必不治, 治之無功, 此皆謂工病不相得, 邪氣不賓服也”라 말했듯이 비록 良醫라도 迷信을 믿고, 鍼을 두려워하고, 痘의 治療를 허락하지 않는 痘者를 만나면 治療하기 어렵고, 痘者의 立場에서 본다면 難治病을 얻어 낫고자 하나 標本을 잘못하여 粗工에게 몸을 맡긴다면 또한 治療할 수 없을 것이다. 本篇은 醫師와 痘者의 相合의 중요성을 말하였다고 하겠다.

2. 水腫病에 있어서 腎과 肺로서의 意味

水腫病에 있어서 腎과 肺로서의 意味는 《素問·水熱穴論》에 나오는데, 그 原文과 이에 대한 代表의 歷代 注釋家의 見解는 다음과 같다.

「水熱穴論 第六十一篇」

“腎者至陰也 至陰者 盛水也 肺者太陰也 少陰者 冬脈也 故其本在腎 其末在肺 皆積水也”^①

“故水病 下爲跗腫 大腹 上爲喘呼 不得臥者 標本俱病 故肺爲喘呼 腎爲水腫 肺爲逆不得臥 分爲相輸 俱受者 水氣之所留也”^②

【各家注】

(1) 楊上善

① 腎脈少陰 上入肺中 故曰末在肺也 所以腎之與肺 母子上下俱積水也²³⁾

② 標爲肺也 本爲腎也 肺爲喘呼 腎爲水腫 二藏共爲水病 故曰俱病也²⁴⁾

23)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서울, 圖書出版鼎, 1994, pp.184~185

24) 前揭書, p.186

(2) 王水

① 陰者 謂寒也 冬月至寒 腎氣合應 故云腎者 至陰也 水王於冬 故云至陰者 盛水也 腎少陰脈從腎上貫肝膈 入肺中 故云其本在腎 其末在肺也 腎氣上逆 則水氣客於肺中 故云皆積水也²⁵⁾

② 標本者 肺爲標 腎爲本 如此者 是肺腎俱水爲病也²⁶⁾

(3) 馬蒔

① 未載

② 水病者 下爲附腫腹大之證 上爲喘呼不得臥之證 下病爲本 上病爲標 是乃標本俱病也 故在肺則爲喘呼 在腎則爲水腫²⁷⁾

(4) 吳崑

① 腎脈 貫肝膈 上入肺中 痘水則上下俱病 故云其本在腎 其末在肺²⁸⁾

② 腎病爲本 肺病爲標²⁹⁾

(5) 張介賓

① 未載

② 水之本在腎 標在肺 標本俱病 故在下則爲附腫大腹 在上則爲喘呼不得臥³⁰⁾

(6) 張志聰

① 未載

② 此標本俱病 蓋腎爲本 肺爲標³¹⁾

(7) 高士宗

① 未載

② 腎爲本 肺爲標 標本俱病 痘標故肺爲

25) 王水, 《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360

26) 前揭書, p.361

27)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365

28) 吳崑, 《黃帝內經素問吳注評釋》,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6, p.313

29) 前揭書, p.315

30) 張介賓, 《張氏類經》, 서울, 成輔社, 1982, p.730

31) 張志聰, 《素問集註》,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449

喘呼 痘本故腎爲水腫³²⁾

(8) 黃元御

① 緣肺金下降 而生腎水 腎脈貫胸膈 入肺中 腎水泛濫 則自其經脈而浸肺藏 皆爲積水之區也³³⁾

② 腎水泛濫 則下爲附腫大腹 肺氣衝逆 則上爲喘呼不得臥 是標本俱病也 喘呼氣逆不得臥者 肺之所爲也 水腫者 腎之所爲也 分爲彼此相輸而上下俱受者 總皆水氣之所留蓄也³⁴⁾

(9) 張琦

① 腎脈入肺中 金木同氣 故水并責之³⁵⁾

② 腎爲本 肺爲標³⁶⁾

【考察】

이상의 「水熱穴論」에서 論한 標本에 대한 經文과 注釋가들의 見解를 살펴보면 諸家들이 모두 “其本在腎, 其末在肺”라는 經文에 근거하여 腎을 本으로 보고 肺를 標로 보았다. 馬蒔는 “水病, 下爲附腫, 大腹, 上爲喘呼, 不得臥”라는 經文에 근거하여 “下病爲本, 上病爲標”이라 하였는데, 이는 腎이 아래에 位置하고, 肺가 위에 位置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標本의 意味는 木의 根幹과 枝葉으로 나누어본 것과 같다고 하겠다.

水腫病에 있어서 腎이 本이 되고 肺가 標가 되는 이유를 深察해 보면, 《素問·上古天眞論》에서 “腎者主水, 受五臟六腑之精

32) 高士宗, 《黃帝素問直解》,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82, p.418

33)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素問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122

34) 前揭書, p.123

35) 張琦, 《素問釋義(近代中醫珍本集)》, 浙江省,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94, p.186

36) 前揭書, p.187

而藏之”³⁷⁾라 하였고, 「靈蘭秘傳論」에서 “膀胱者, 州都之官, 津液藏焉, 氣化則能出矣”³⁸⁾이라 하였고, 「經脈別論」에서 “飲入於胃, 遊溢精氣, 上輸於脾, 脾氣散精, 上歸於肺, 通調水道, 下輸膀胱”³⁹⁾이라 하였고 「逆調論」에서 “夫不得臥, 臥則喘者, 是水氣之客也. 夫水者, 循津液而流也. 腎者水藏, 主津液, 主臥與喘也”⁴⁰⁾이라 하고 『靈樞·本輸』에서 “腎上連肺”라 하여水分의 生理의 代謝의 장애로 인해 誘發된 痘證 즉, 水腫病에 있어서 腎과 肺가 연관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단지 水는 腎이 主하기 때문에 本이 되고 肺는 氣化作用을 主宰하여 水가 行하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標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本篇에서 標本治療의 意義는 다음과 같다.

腎主水하고 肺主氣하므로 水病의 治療에 腎이 根本이 되고, 人體內水分의活動은 肺의 氣化作用에 依存하므로 肺 또한 아울러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고 하겠다.

水病의 原因은 주로 腎과 肺의 기능소실과 관련이 많기 때문에 水病의 治療에 있어서 《素問·湯液醪醴論》에서 “津液充郭, 形不可與衣相保, 開鬼門, 潔淨府”⁴¹⁾라 하여 開鬼門 즉 發汗시키고, 潔淨府 즉 利小便시켜야 한다고 하였고, 또 《金匱要略》에서 “諸有水者, 腰以下腫, 當利小便, 腰以上腫, 當發汗, 乃癒”⁴²⁾라 하여 腰 이하의

浮腫은 利小便해야 하고 腰 이상의 浮腫은 發汗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利小便是 곧 腎과 發汗은 곧 肺와 密接한 關係를 반영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3. 先病과 後病으로서의 意味

先病과 後病으로서의 意味는 《素問·標本病傳論》 및 《靈樞·病本》에 나오는데, 《靈樞·病本》은 《素問·標本病傳論》의一部 内容을 그대로 발췌하여 놓은 것으로 다른 内容은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서 言及하지 않겠다. 그 原文과 이에 대한 代表의 人歷代注釋家의 見解는 다음과 같다.

「標本病傳論 第六十五篇」

“黃帝問曰 痘有標本 刺有逆從 奈何”^①

“岐伯對曰 凡刺之方 必別陰陽 前後相應逆從得施 標本相移”^②

“故曰有其在標而求之於標 有其在本而求之於本 有其在本而求之於標 有其在標而求之於本 故治有取標而得者 有取本而得者 有逆取而得者 有從取而得者”^③

“故知逆與從 正行無間 知標本者 萬舉萬當 不知標本 是謂妄行”^④

“夫陰陽逆從標本之爲道也 小而大 言一而知百病之害 少而多 淺而博 可以言一而知百也 以淺而知深 察近而知遠 言標與本 易而勿及”^⑤

“治反爲逆 治得爲從 先病而後逆者治其本 先逆而後病者治其本 先寒而後生病者 治其本 先病而後生寒者治其本 先熱而後生病者治其本 先熱而後生中滿者治其標 先病而後泄者治其本 先泄而後生他病者治其本 必且調之 乃治其他病 先病而後生中滿者治其標 先中滿而後煩心者治其本 人有客氣有同

37) 王冰, 《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6

38) 前揭書, p.68

39) 前揭書, p.157

40) 前揭書, p.222

41) 前揭書, p.100

42) 張仲景, 《金匱要略精解》, 大邱, 東洋綜合通

信教育院出版社, 1986, p.122

氣”^⑥

“小大不利治其標 小大利治其本”^⑦

“病發而有餘 本而標之 先治其本 後治其標 痘發而不足 標而本之 先治其標 後治其本”^⑧

“謹察間甚以意調之 間者并行 甚者獨行 先小大不利而後生病者 治其本”^⑨

【各家注】

(1) 楊上善：缺

(2) 王冰

①, ②, ③, ④, ⑤, ⑥ 未載

⑦ 本先病 標後病 必謹察之⁴³⁾

⑧ 本而標之 謂有先病 復有後病也 以其有餘 故先治其本 後治其標也 標而本之 謂先發輕微緩者 後發重大急者 以其不足 故先治其標 後治其本也⁴⁴⁾

⑨ 未載

(3) 馬蒔

① 標者病之後生 本者病之先成 此乃病體之不同也⁴⁵⁾

② 未載

③ 痘有在後來而爲標者 乃止治其標 而不治其本 然亦有不求之於標 而必求之於本者 痘有先成而爲本者 乃止治其本 而不治其標 然亦有不求之於本 而必求之於標者 故治有取標而愈 有取本而愈 有逆取而愈 有順取而愈⁴⁶⁾

④ 知病體之標本者 必萬舉萬當 而不妄行刺法也 若不知標本 則病體未明 而不免妄行耳⁴⁷⁾

43) 王冰, 《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Z390

44) 前揭書, p.391

45)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393

46) 前揭書, p.394

⑤ 未載

⑥ 凡先生病而後病勢逆者 必先治其初病之爲本 若先病勢之逆 而後生他病者 則又以病勢逆之爲本 而先治之也 凡先生寒證 而後生他病者 必先治氣寒病之爲本 若先生別病而後生寒證者 則又以別病之爲本 而先治之也 凡先生熱病而後生別病者 必先治其熱病之爲本 若先生熱病而後生中滿者 則又以中滿 雖爲標 而必先治之也 凡先生別病者 後生泄瀉者 必先治其別病之爲本 若先生泄瀉而後生別病者 則又以泄瀉之爲本 而先治之也 此則先治之者 正以必先調之 而後治別病耳 不惟是也 凡先生別病 而後生中滿者 必先治其中滿之爲標 若先生中滿 而後煩心者 則又以中滿之爲本 而先治之也⁴⁸⁾

⑦ 先中滿而後二便不利者 必先治大小便不利之爲標 若中滿而小大便利者 則又以中滿之爲本 而先治之也⁴⁹⁾

⑧ 大凡病發而大勢有餘者 則先治其初病之爲本 而後治其後病之爲標 蓋先治其本 則有餘之勢 一瀉而後 諸病可去矣 正本而標之之謂也 痘發而大勢不足者 則先治其後病之爲標 而後治其先病之爲本 蓋先治其標 則不足之勢 一補而後 本病自培矣 正標而本之之謂也⁵⁰⁾

⑨ 且先小大便不利 而後生別病者 則又以小大便不利之爲本 而先治之也⁵¹⁾

(4) 吳崑

① 逆者 痘在本而求之標 痘在標而求之本也 從者 痘在本而求之本 痘在標而求之標也⁵²⁾

47) 前揭書, p.394

48) 前揭書, p.395

49) 前揭書, p.395

50) 前揭書, p.395

51) 前揭書, p.395

52) 吳崑, 《黃帝內經素問吳注評釋》, 北京, 中

② 刺有或取于標 或取于本 互相移易⁵³⁾
③ 言標本逆從知刺 各有所宜 治非一途
取也⁵⁴⁾

④ 甚言標本之不可不知也⁵⁵⁾
⑤ 一者本也 百者標也 言標本之分 雖若
易者 實則無能及也⁵⁶⁾

⑥ 中滿者 胃中邪氣作實也 土稱坤元 萬
物之母 治之或後則百骸失養 故無問標本皆
先治之 人有客氣有同氣 風寒暑濕燥火 六氣
感人 隨經而客 謂之客氣⁵⁷⁾

⑦ 小大二便不利 危急之候也 雖為標亦
先治之 小大利則先治其本也 先小大不利而
後生病者治其本⁵⁸⁾

⑧ 正氣有餘者先治其本 而後標之 正氣
不足者 先治其標 而後本之⁵⁹⁾

⑨ 未載

(5) 張介賓

①, ②, ③ 未載

④ 既知標本逆從之道 尚何疑問 又何不
當 此甚言標本之不可不知也⁶⁰⁾

⑤ 一者本也 百者標也⁶¹⁾

⑥ 有因病而致血氣之逆者 有因逆而致變
生之病者 有因寒熱而生為病者 有因病而生
為寒熱者 但治其所因之本原 則後生之標病
可不治而自愈矣 諸病皆先治本 而惟中滿者
先治其標 蓋以中滿為病 其邪在胃 胃者藏府
之本也 胃滿則藥食之氣不能行 而藏府皆失

醫古籍出版社, 1986, p.345

53) 前揭書, p.345

54) 前揭書, p.345

55) 前揭書, p.345

56) 前揭書, p.345

57) 前揭書, p.346

58) 前揭書, p.346

59) 前揭書, p.346

60) 張介賓, 《張氏類經》, 서울, 成輔社, 1982,
p.311

61) 前揭書, p.312

其所稟 故先治此者 亦所以治本也⁶²⁾

⑦ 無論客氣同氣之為病 卽先有他病 而
後為小大不利者 亦先治其標 諸皆治本 此獨
治標 蓋二便不通 乃危急之候 雖為標病 必
先治之 此所謂急則治其標也⁶³⁾

⑧ 此以病氣強弱而言標本也 如病發之氣
有餘 則必侮及他藏他氣 而因本以傳標 故必
先治其本 痘發之氣不足 則必受他藏他氣之
侮 而因標以傳本 故必先治其標⁶⁴⁾

⑨ 未載

(6) 張志聰

① 標本者 六氣之化⁶⁵⁾

② 少陽標陽而本火 太陰標陰而本濕 少
陰標陰而本熱 太陽標陽而本寒 陽明標陽而
本燥 厥陰標陰而本風 少陽太陰從本 少陰太
陽從本從標 陽明厥陰不從標本 從乎中也 從
本者 化生於本 從標本者 有標本之化 從中
者 以中氣為化也 標本相移者 有取標而得者
有取本而得者⁶⁶⁾

③ 有其在標而求之於標者 謂病三陰三陽
之六氣 卽於六經中求之以治標 有其在本而
求之於本者 謂病風寒暑濕燥火六淫之邪 卽
於六氣中求之以治本 有其在本而求之於標者
如寒傷太陽 乃太陽之本病 而反得標陽之熱
化 卽求之於標 而以涼藥治其標熱 有其在標
而求之於本者 如病在少陰之標陰 而反得君
火之本熱 卽求之於本 以急瀉其火⁶⁷⁾

④, ⑤ 未載

⑥ 逆者 勝剋之氣也 先病者 謂吾身中先
有其病也 先逆先寒先熱者 謂在天之六氣也

62) 前揭書, p.312

63) 前揭書, p.312

64) 前揭書, p.313

65) 張志聰, 《素問集註》,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484

66) 前揭書, p.484

67) 前揭書, p.485

先病而後逆者 如吾身中先有脾土之病 而後復感其風邪重傷脾土 則當先治其脾土 而後治其風邪 如先感天之風邪 剋傷中土 以治脾藏爲病 是當先治其風邪 而後調其脾土 故曰標與本 易而勿損 察本與標 氣可令調 明知勝復爲萬民式天之道畢矣 先寒者 寒溼所勝也 以吾身感之而生病者 是當治其寒邪 如先病而後生寒者 當治其身之本病 而寒氣自解矣 男兆璜曰 先寒者客氣 生寒者動機 先熱者 热溼所勝也 以吾身感之而生病者 是當治其本熱 如吾身感之而生中滿者 又當治其中滿 蓋六溼之邪 始傷六氣 若致中滿 則病氣入內 故當治其內 泄者 濕土之病也 他病者如濕邪所勝 民病心痛耳聾之類 故當先治其虛泄 必且調之脾土 而後治其他病 「至真要論」曰 “諸脹腹大 皆屬於熱” 如先病熱而後生中滿者 是當治其中滿 如先病中滿而濕熱之氣 上乘於心 以致其煩者 亦當治其中滿而煩者解矣 夫先熱而後生中滿者 感天之熱溼 而致生中滿也 先病而後生中滿者 痘吾身中之熱 而生中滿也 故曰人有客氣 有同氣客氣者 謂在天之六氣 同氣者 謂吾身中亦有此六氣 而與天氣之相同也⁶⁸⁾

⑦ 未載

⑧ 「六微旨論」曰 少陽之上 火氣治之 陽明之上 燥氣治之 太陽之上 寒氣治之 厥陰之上 風氣治之 少陰之上 熱氣治之 太陰之上 濕氣治之 所謂本也 本之下 氣之標也 此皆以風寒暑濕燥火六氣爲本 而以三陰三陽之六氣爲標⁶⁹⁾

⑨ 未載

(7) 高士宗

① 標本 陰陽先後之氣也 先病爲本 後病

爲標 人身正氣調和 外感風熱濕火燥寒之氣謂之客氣 則以外感客氣爲本 三陽三陰正氣爲標 若正氣先病 因病而生風熱濕火燥寒之氣 謂之同氣 則以三陽三陰正氣爲本 所生同氣爲標 故治有從本者 有從標者 有先治其本而後治其標者 有先治其標而後治其本者 間者并行 甚者獨行 此標本之大法也⁷⁰⁾

② 未載

③ 「至真要大論」曰 百病之起 有生於本者 有生於標者 有取本而得者 有取標而得者 有逆取而得者 有從取而得者 故曰有其在標而求之于標 此病生于標 取標而得也 有其在本而求之于本 此病生于本 取本而得也 二者乃從取之法也 有其在本而求之于標 有其在標而求之于本 二者乃逆取之法也 故申明治有取標而得者 卽在標而求之于標也 有取本而得者 卽在本而求之于本也 有逆取而得者 卽在本求標在標求本也 有從取而得者 卽在標求標 在本求本也⁷¹⁾

④, ⑤ 未載

⑥ 凡病皆當治本 惟中滿而大小不利 當治其標 更當察其間甚 為并行獨行之治也 先病而後逆者 先病爲本 後逆爲標 當治其先病之本 先逆而後病者 先逆爲本 後病爲標 當治其先逆之本 先寒而後生病者 先寒爲本 後病爲標 當治其先寒之本 先病而後生寒者 先病爲本 後寒爲標 當治其先病之本 先熱而後生病者 先熱爲本 後病爲標 當治其先熱之本 先熱而後生中滿 則不治先熱之本 而治中滿之標 先病而後泄者 治其先病之本 先泄而後生他病者 治其先泄之本 先泄則中土先虛 既治其本 必且調之 乃治其他病 所以重其中土也 先病而後生中滿者 則治中滿之標 先中滿而

70) 高士宗, 《黃帝素問直解》,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82, p.452

71) 前揭書, p.453

後煩心者 則治中滿之本 雖有標本 中滿當先治也⁷²⁾

⑦ 後生中滿 而治後病之標者 以中滿 則小大二便不利 故治其後病之標 若中滿而小大利 亦當先治其本⁷³⁾

⑧ 痘發而邪氣有餘 則本而標之 申明本而標之者 先治其邪氣之本 後治其正氣之標 此治有餘之法也 痘發而正氣不足 則標而本之 申明標而本之者 先治其正氣之標 後治其邪氣之本 此治不足之法也 風熱濕火燥寒溼氣為本 人身三陽三陰正氣為標⁷⁴⁾

⑨ 若先小大二便不利 後生標本之病者無論間甚 但治氣本 以行其便⁷⁵⁾

(8) 黃元御

① 未載

② 凡刺之法 必別陰陽 陰陽之氣 前後相應 標本相移 審其鍼刺之宜忌 而後逆從得施而無誤⁷⁶⁾

③ 痘有標本 求而取之 各有所得 是分逆從 逆取者 取之於標也 從取者 取之於本也⁷⁷⁾

④ 言標本逆從之道 不可不知也⁷⁸⁾

⑤ 未載

⑥ 治與病反為逆 治與病得為從 先病而後逆者 逆由病生 則治其本 先逆而後病者 痘由逆生 則治其本 先寒而後生病者 寒為本也 則治其本 先病而後生寒者 痘為本也 則治其本 先病而後泄者 痘為本也 則治其本 先泄而後生他病者 泄為本也 則治其本 凡此

必且調之 令其本愈 乃治其他病 若先熱而後生病者 热為重 則治其本 先熱而後生中滿者 中滿為重 則治其標 先中滿而後煩心者 中滿為重 仍治其本 先病而後生中滿者 中滿為重 則治其標⁷⁹⁾

⑦ 小大利 則他病為重 但治其本 小大不利 則他病為輕 必治其標 以小大不利 諸病之標 而所關甚巨 不得不先也 小大不利而後生他病者 則小大為重 必治其本 以小大不利 諸病之本 雖雜證叢生 皆在所緩也⁸⁰⁾

⑧ 人有客氣有主氣 主為本 客為標 本宜急而標宜緩也 但有虛實之分 不可拘也 痘發而有餘 則先本而後標 痘發而不足 則先標而後本⁸¹⁾

⑨ 謹察間甚 以意調之 間者標本并行 以其病輕也 甚者標本單行 以其病重也⁸²⁾

(9) 張琦

①, ②, ③, ④, ⑤ 未載

⑥ 胃為藏府之本 故先治之⁸³⁾

⑦ 二便為氣化通塞之候 故凡見此症 則急治之⁸⁴⁾

⑧ 先病為本 後病為標 藏府為本 經脈為標 正氣為本 痘氣為標 察標本之道 必知有餘不足 消息之方 可施治 有餘者 痘雖多端 必從其受邪之所 先治之 後及其標 若不足之人 不任峻攻 則先剪其羽翼 徐殺其勢 乃可治其本病之處 此因人之本氣虛實不同而異治也 間者并行 謂病勢輕者 標本可以兼治 甚者獨行 謂病勢甚者 或宜治本 或宜治標 一意專行 勿多瞻徇也⁸⁵⁾

72) 前揭書, p.454

73) 前揭書, p.454

74) 前揭書, p.455

75) 前揭書, p.455

76)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素問懸解, 靈樞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180

77) 前揭書, p.181

78) 前揭書, p.181

79) 前揭書, p.181

80) 前揭書, p.181

81) 前揭書, p.181

82) 前揭書, p.181

83) 張琦, 《素問釋義(近代中醫珍本集)》, 浙江省,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94, p.202

84) 前揭書, p.203

⑨ 先小大不利而後生病者 治其本：錯簡當在小大利治其本之下⁸⁶⁾

【考察】

이상의 「標本病傳論」에서 論한 標本에 대한 經文과 注釋가들의 見解를 살펴보면 王冰, 馬蒔, 張介賓, 高士宗, 張琦는 “先病爲本, 後病爲標”라 注釋하여 痘의 傳變에 있어서 標本의 意味를 먼저 이루어진 병증을 本으로 보고 뒤에 생긴 병증을 標로 보았다.

張介賓은 “有因病而致血氣之逆者, 有因逆而致變生之病者, 有因寒熱而生爲病者, 有因病而生爲寒熱者”라 하여 痘證을 標本으로 固定할 수 없음을 間接的으로 말하였다.

標本 治療에 있어서 本篇에서는一般的으로 먼저 發生한 痘證인 本을 먼저 治療하고, 뒤에 發生한 痘證인 標를 뒤에 治療하는 것이 原則이지만, 中滿과 大小便不利는 비록 뒤에 發生한 標病이 되더라도 먼저 治療해야 된다고 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 吳崑과 張介賓은 다음과 같이 說明하였다. 吳崑은 “中滿者, 胃中邪氣作實也. 土稱坤元, 萬物之母, 治之或後則百骸失養”이라 하여 胃는 萬物의 母와 같으니 혹 나중에 治療하게 되면 全身이 濟養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治療해야 한다고 하였고, “小大二便不利, 危急之候也. 雖爲標, 亦先治之”라 하여 大小便不利는 危急한 痘候이므로 급히 治療해야 한다고 하였다. 張介賓은 “其邪在胃, 胃者藏府之本也, 胃滿則藥食之氣不能行, 而藏府皆失其所稟, 故先治此者”라 하여 中滿은 邪氣가 胃에 있는 것인데 胃는 藏府의 根本이 되니 胃가 滿하면 藥

食의 氣가 行할 수 없어서 臟腑가 모두 그로 因하여 氣血을 받을 수 없으므로 中滿을 먼저 治療해야 한다고 하였고, “蓋二便不通, 乃危急之候, 雖爲標病, 必先治之, 此所謂急則治其標也”라 하여 大小便이 不利한 것은 危急한 徵候이므로 ‘急則治標, 緩則治本’의 原理에 따라 大小便不利를 먼저 治療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張琦는 “二便爲氣化通塞之候, 故凡見此症, 則急治之”라 하여 大小便은 氣化作用의 通과 塞을 나타내는 痘候이므로 二便의 閉塞은 急治해야 한다고 하였다.

本篇의 末尾에서 痘發함에 有餘와 不足으로써 標本 先後 治法을 論하였는데 이에 대한 注釋은 內容上 크게 三別할 수 있다. 첫째, 王冰은 “本而標之, 謂有先病, 復有後病也, 以其有餘, 故先治其本, 後治其標也. 標而本之, 謂先發輕微緩者, 後發重大急者, 以其不足, 故先治其標, 後治其本也”라 하여 痘發함에 有餘하면 本을 먼저 治療하고, 發함에 輕微한 痘은 標를 먼저 治療한다고 하였고, 馬蒔 또한 “大凡病發而大勢有餘者, 則先治其初病之爲本, 而後治其後病之爲標. 蓋先治其本, 則有餘之勢, 一瀉而後, 諸病可去矣, 正本而標之謂也. 痘發而大勢不足者, 則先治其後病之爲標, 而後治其先病之爲本. 蓋先治其標, 則不足之勢, 一補而後, 本病自培矣, 正標而本之謂也”라 하여 痘勢가 有餘하면 먼저 本을 治療하고 뒤에 標를 治療하며, 痘勢가 不足하면 標를 먼저 治療하고 뒤에 本을 治療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王冰의 說을 奏아 조금 달리 表現했을 뿐이다. 기타 張介賓, 黃元御 등이 모두 王冰의 說을 奏았다.

둘째, 吳崑은 “正氣有餘者先治其本, 而後標之, 正氣不足者, 先治其標, 而後本之”라

85) 前揭書, p.203

86) 前揭書, p.203

하여 正氣가 有餘하면 本을 먼저 治療하고 正氣가 不足하면 標를 먼저 治療한다고 하였고, 張琦도 “此因人之本氣虛實不同而異治也”라 하여 正氣의 有餘와 不足으로 설명하였다.

세째, 高士宗은 獨自의으로 “病發而邪氣有餘, 則本而標之, 申明本而標之者, 先治其邪氣之本, 後治其正氣之標, 此治有餘之法也. 病發而正氣不足, 則標而本之, 申明標而本之者, 先治其正氣之標, 後治其邪氣之本, 此治不足之法也”라 하여 邪氣有餘하면 本을 먼저 治療하고, 正氣不足하면 標를 먼저 治療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注釋家들의 見解를 總括하건데 原文에서 “病發而有餘, 本而標之”에 대하여 王冰, 馬蒔, 高士宗 등이 邪氣有餘라고 解釋하는 것은 옳다고 보며, 吳崑, 張琦 등이 正氣有餘로 해석한 것은 適切한 해석이 아니라고 본다. “病發而不足, 標而本之”에 대하여 本病의 痘勢가 輕微할 때는 標를 먼저 치료한다는 王冰 등의 주장도 옳고, 《素問·通評虛實論》에서 “邪氣盛則實, 正氣奪則虛”⁸⁷⁾라 하였으니 正氣가 不足한 痘으로 본 吳崑 및 高士宗의 說도 옳다고 본다. 結論的으로 말하면 痘이 發生하여 痘勢가 有餘하면 먼저 本을 治療하고 痘이 發生하여 痘勢가 不足하거나, 痘이 오래되어 正氣가 不足한 痘疾病에 있어서는 後에 發病한 急한 痘을 먼저 治療해야 하는 治療原則을 教示한 經文이라고 하겠다.

張志聰은 “「六微旨論」曰, 少陽之上, 火氣治之, 陽明之上, 燥氣治之, 太陽之上, 寒氣治之, 厥陰之上, 風氣治之, 少陰之上, 熱氣治之, 太陰之上, 濕氣治之, 所謂本也.”

87) 王冰, 《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195

本之下, 氣之標也. 此皆以風寒暑濕燥火六氣爲本, 而以三陰三陽之六氣爲標”라 하여 六氣를 本으로 보고 三陰三陽을 標로 보았는데, 本篇에서 “有取本而得者, 有取標而得者, 有取中氣而得者, 有取標本而得者, 有逆取而得者, 有從取而得者”는 運氣篇인 「至真要大論」에도 重複되어 나오기 때문에 아마 運氣로 解釋한 것 같은데 本篇의 主題와는 거리가 멀다고 본다.

本篇에서 標本治療의 意義는 다음과 같다.

先病과 後病에 있어서一般的으로 大部分의 痘은 ‘治病必求於本’의 原理에 따라 本을 먼저 治療하고 標를 後에 治療함이 마땅하지만, 中滿이나 大小便不利는 危急한 痘證이므로 ‘急則治標 緩則治本’의 原理에 따라 급히 治療해야 할 것이고, 痘氣의 盛衰에 따른 治療는 邪氣가 有餘하여 先病의 劢力이 크면 本을 먼저 治療하고, 正氣가 不足하여 先病의 劢力이 弱한 반면에 後病의 动力이 크고 急하면 標를 먼저 治療해야 된다고 하였다. 本篇은 先後病의 治療에 있어서 先治, 後治의 判断의 중요성을 말하였다고 하겠다.

4. 天地運氣에 있어서 六氣와 三陰三陽으로서의 意味

天地運氣에 있어서 六氣와 三陰三陽으로서의 意味는 《素問·天元紀大論》, 「六微旨大論」, 「至真要大論」에 나오는데, 그 原文과 이에 대한 代表의인 歷代 注釋家の 見解는 다음과 같다.

「天元紀大論 第六十六篇」

“厥陰之上 風氣主之 少陰之上 热氣主之
太陰之上 濕氣主之 少陽之上 相火主之 陽

明之上 燥氣主之 太陽之上 寒氣主之 所謂本也 是謂六元”^①

「六微旨大論 第六十八篇」

“少陽之上 火氣治之 中見厥陰 …… 諸上主治 所謂本也 本之下 中之見也 見之下氣之標也 本標不同 氣應異象”^②

「至真要大論 第七十四篇」

“帝曰 善 病生於本 余知之矣 生於標者治之奈何 岐伯曰 痘反其本 得標之病 治反其本 得標之方”^③

“岐伯曰 少陽太陰從本 少陰太陽從本從標 陽明厥陰不從標本 從乎中也 故從本者化生於本 從標本者有標本之化 從中者以中氣爲化也”^④

“是故百病之起 有生於本者 有生於標者 有生於中氣者 有取本而得者 有取標而得者 有取中氣而得者 有取標本而得者 有逆取而得者 有從取而得者 逆正順也 若順逆也 故曰 知標與本 用之不殆 明知逆順 正行無問此之謂也”^⑤

“夫標本之道要而博 小而大 可以言一而知百病之害 言標與本 易而無損 察本與標氣可令調 明知勝復 爲萬民式 天之道畢矣”^⑥

【各家注】

(1) 楊上善：缺

(2) 王冰

① 三陰三陽謂標 寒暑燥濕風火謂本 故云所謂本也⁸⁸⁾

② 本者應之元 標者病之始 痘生形用 求之標 方施其用 求之本 標本不同 求之中 見法萬全⁸⁹⁾

③ 未載

88) 前揭書, p.406

89) 前揭書, p.428

④ 少陽之本火 太陰之本濕 本末同 故從本也 少陰之本熱 其標陰 太陽之本寒 其標陽 本末異 故從本從標 陽明之中 太陰厥陰之中 少陽本末與中不同 故不從標本 從乎中也 從本從標 從中 皆以其爲化主之用也⁹⁰⁾

⑤, ⑥ 未載

(3) 馬蒔

① 未載

② 少陽之上 火氣治之 中見厥陰 陽明之上 燥氣治之 中見太陰 太陽之上 寒氣治之中見少陰 厥陰之上 風氣治之 中見少陽 少陰之上 热氣治之 中見太陽 太陰之上 濕氣治之 中見陽明者 其火燥風寒熱濕爲治之氣皆所謂六氣之本也⁹¹⁾

③ 此節所謂本者 蓋以風寒暑濕燥火爲本也 所謂標者 以三陰三陽爲標也 如天之本在風標在厥陰 則人之病在肝 而厥陰之中見少陽 則又在於膽 天之本在火 標在少陽則人之病在膽 而少陽之中見厥陰 則又在於肝 故病生於本似易知而治標之方則難必 殊不知病自本始 則知標病之所由來也 治之者 亦卽其本而推之 則得標之所以立其方矣 假如本在於風 則標之方亦在於風耳⁹²⁾

④ 六氣有從本而取之者 正以少陽之本火 太陰之本濕 本未同故從本也 何也 以氣化從本而生也 有從本從標而取之者 正以少陰之本熱 其標陰 君火生於午 午者一陰生之位 火本熱 而其氣當陰生之初 故標本異而君火屬少陰 太陽之本寒 其標陽 水居北方子 而子者一陽生之位 水本寒 而其氣當陽生之初 故標本異 而寒水屬太陽 故從本從標也 何也 以氣化從本標而生也 有不從本標 而從中氣以取之者 陽明之中太陰 厥陰之中少陽 本末

90) 前揭書, p.592

91)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438

92) 前揭書, p.616

與中不同 故不從標本從乎中也 何也 以氣化從中氣而生也⁹³⁾

⑤ 人之治病者有取本而得者 有取標而得之者 有取中氣而得者 有兼取標本而得者 有逆取而得之者 卽寒病治以熱 热病治以寒 如上文反其佐以取之者是也 有從取而得者 卽寒病治以熱 热病治以寒 如上文奇之不去則偶之者是也 寒逆取而得之者 人皆以爲逆 而不知寒盛格陽 治宜以熱 热盛格陰 治宜以寒 外雖若逆 而中則甚順 正其所以爲順也 若寒格陽而治以寒 热格寒而治以熱則外雖若順中氣乃逆 此其所以爲逆也⁹⁴⁾

⑥ 未載

(4) 吳崑

① 三陰三陽爲標 寒暑燥濕風火爲本 一元析而爲六 故曰六元⁹⁵⁾

②, ③ 未載

④ 少陽之本火 太陰之本濕 標本同氣 是從其本而化也 少陰之本熱 其標陰 太陽之本寒 其標陰 標本易氣 是從本化又從標化也 陽明厥陰不從標本從乎中者 經曰 陽明之上燥氣治之 中見太陰 厥陰之上 風氣治之 中見少陽 是陽明不從標之陽 不從本之燥 而從中見之濕化 厥陰不從標之陰 不從本之風 而從中見之相火 此之謂不從標本從乎中也⁹⁶⁾

⑤ 言所謂逆者 正是順治 若所謂順者 乃逆治也 如以寒治熱 以熱治寒 以藥逆病 正順治也 以寒治寒 以熱治熱 以藥順病 乃用之反治 謂之逆也 不和是者 不足以言診 足以亂經 不殆 不危也 無問 不必更問也 不知標本逆順之旨者 不足與之言病診 适足以亂經氣耳⁹⁷⁾

⑥ 未載

(5) 張介賓

① 三陰三陽者 由六氣之化爲之主 而風化厥陰 熱化少陰 濕化太陰 火化少陽 燥化陽明 寒化太陽 故六氣謂本 三陰三陽爲標也⁹⁸⁾

② 所謂本也一句 與前天元紀章所云者同義 蓋上之六氣 爲三陰三陽之本 下之三陰三陽 爲六氣之標 而兼見于標本之間者 是陰陽表裏之相合 而互爲中見之氣也 本表不同者 若以三陰三陽言之 如太陽本寒而標陽 少陰本熱而標陰也 以中見之氣言之 如少陽所至爲火生 而中爲風 陽明所至爲燥生 而中爲濕 太陽所至爲寒生 而中爲熱 厥陰所至爲風生 而中爲火 少陰所至爲熱生 而中爲寒 太陰所至爲濕生 而中爲燥也 故歲氣有寒熱之非常者 診法有脈從而病反者 痘有生于本 生于標生于中氣者 治有取本而得 取標而得 取中氣而得者 此皆標本之不同而氣應之異象 卽下文所謂物生其應 脈氣其應者是也 故如瓜蒂苦 蔥白葉青 參補蘆寫 麻黃發汗 根節止汗之類 皆本標不同之象⁹⁹⁾

③ 痘之先受者爲本 痘之後變者爲標 生于本者 言受病之原根 生于標者 言目前之多變也 謂病有標本 但反求其所致之本 則見在之標病 可得其陰陽表裏之的矣 治有本末 但反求其拔本之道 則治標之運用 可得其七方十劑之妙矣¹⁰⁰⁾

標 末也 本 原也 猶樹木之有根枝也 分言之則根枝異形 合言之則標出乎本¹⁰¹⁾

④ 六氣少陽爲相火 是少陽從火而化 故火爲本 少陽爲標 太陰爲濕土 是太陰從濕而化 故濕爲本 太陰爲標 二氣之標本同 故經

93) 前揭書, p.619
94) 前揭書, p.619

95) 吳崑, 《黃帝內經素問吳注評釋》,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6, p.355.

96) 前揭書, p.455

97) 前揭書, p.456

98) 張介賓, 《張氏類經》, 서울, 成輔社, 1982, p.815

99) 前揭書, pp.824~825

100) 前揭書, p.311

101) 前揭書, p.308

病之化皆從乎本 少陰爲君火 從熱而化 故熱爲本 少陰爲標 是陰從乎陽也 太陽爲寒水 從寒而化 故寒爲本 太陽爲標 是陽從乎陰也 二氣之標本異 故經病之化 或從乎標 或從乎本 陽明爲燥金 從燥而化 故燥爲本 陽明爲標 厥陰爲風木 從風而化 故風爲本 厥陰爲標 但陽明與太陰爲表裏 故以太陰爲中氣 而金從濕土之化 厥陰與少陽爲表裏 故以少陽爲中氣 而木從相火之化 是皆從乎中也¹⁰²⁾

⑤ 病生于本者 必求其本而治之 病生于標者 必求其標而治之 病生于中氣者 必求中氣而治之 或生于標 或生于本者 必或標或本而治之 取有標本 治有逆從 以寒治熱 治真熱也 以熱治寒 治真寒也 是爲逆取 以熱治熱 治假熱也 以寒治寒 治假寒也 是爲從取¹⁰³⁾

⑥ 如三陰三陽 皆由六氣所化 故六氣爲本 三陰三陽爲標¹⁰⁴⁾

(6) 張志聰

① 風寒暑濕燥火 在天之六氣也 三陰三陽合於地之十二支 而上奉天之六氣 是以六氣爲本 而三陰三陽爲標 故下文曰 本之下中之見也 見之下 氣之標也¹⁰⁵⁾

② 此言三陰三陽 有六氣之化 有上下之本標 有中見之標本也 風寒暑濕燥火 天之陰陽也 三陰三陽奉之 故以天氣爲本而在上 以三陰陽之氣標見於下也¹⁰⁶⁾

③ 痘生於本者 生於風寒熱濕燥火也 生於標者 生於三陰三陽之氣也 如太陽爲諸陽之首而本爲寒水 少陰爲陰中之太陰而本於君火 陽明乃陽盛之氣而本於清肅 厥陰主陰極而本於風木之陽 此陰陽之中 又有標本之不同也 痘反其本者 如病寒而反得太陽之熱化

102) 前揭書, pp.308~309

103) 前揭書, pp.309~310

104) 前揭書, p.310

105) 張志聰, 《素問集註》,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500

106) 前揭書, p.530

病熱而反見少陰之陰寒 痘在陽而反見清肅之虛寒 痘在陰而反得中見之火熱 所謂病反其本 得標之病也 治反其本者 如病本寒而化熱 則反用涼藥以治熱 如病本熱而化寒 則反用熱藥以治寒 如病在陽明而化虛冷 則當溫補其中氣 如病在厥陰而見火熱 又當逆治其少陽 所謂治反其本 得標之方 少陽少陰 標本相同 皆從陽熱陰濕而治¹⁰⁷⁾

④ 陰濕之土 而標見太陰之陰 初陽之火 而標見少陽之陽 是標之陰陽 從本化生 故太陰少陽從本 少陰之本熱 而標見少陰之陰 太陽之本寒 而標見太陽之陽 陰中有陽 陽中有陰 有水火寒熱之化 故少陰太陽 從本從標 陽明之上 燥氣治之 中見太陰 厥陰之上 風氣治之 中見少陽 蓋陽明司四時之秋令 而太陰主四氣之清秋 厥陰爲兩陰交盡 陰盡而一陽始生 是以陽明厥陰 從中見之化也¹⁰⁸⁾

⑤ 夫百病之生 總不出於六氣之化 如感風寒暑濕燥火而爲病者 痘天之六氣也 天之六氣 痘在吾身 而吾身中 又六氣之化 如中風天之陽邪也 痘吾身之肌表 則爲發熱咳嗽 在筋骨則爲痛痺拘攣 在腸胃則爲下痢飧泄 或爲燥結閉癃 或直中於內 則爲霍亂嘔逆 或爲厥冷陰寒 此表裏陰陽之氣化也 如感吾身之陽熱 則爲病熱 感吾身之陰寒 則爲病寒 感吾身之水濕 則爲痰喘 感吾身之燥氣 則爲便難 如中於府則暴化而卒不知人 中於藏 舌則難言而口唾涎沫 又如傷寒天之陰邪也 或中於陰 或中於陽 有中於陽而反病寒者 有中於陰而反病熱者 是吾身之陰中有陽 陽中有陰 標本陰陽之氣化也 如感吾身中之水濕 則爲青龍五苓之證 如感吾身中之燥熱 又宜於白虎承氣諸湯 此止受天之陰邪 而吾身中有表裏陰陽變化之不同也 又如夏月之病 有手足厥冷而成薑桂蓼附之證也 蓋夏月之陽氣 盡

107) 前揭書, pp.716~717

108) 前揭書, pp.718~719

發越於外 而裏氣本虛 受天之風暑 而反辨爲陰寒 皆吾身之氣化 非暑月之有傷寒也 是以腎巧之士 知標本之病生 則知有標本之氣化 知標本之氣化 則能用標本之治法矣 故知標與本 用之不殆 明知順逆 正行無間 此之謂也¹⁰⁹⁾

⑥ 此極言標本之用也 言標本之道 雖爲要約 而其用則廣博 雖爲微小 而其用則弘大 可以言一而知百病之害者 惟知標本故也 言標與本 則施治平易 而無傷損 察本與標 則六氣雖變 可使均調 明知標本勝復 令之以爲民式 如此則天之道畢矣¹¹⁰⁾

(7) 高士宗

① 風熱濕火燥寒在上 所謂本也¹¹¹⁾

② 此火燥寒風熱濕六氣在上 所謂本也 厥陰少陰太陰少陽陽明太陽六氣在中 是本之下而有中之見也 少陽陽明太陽厥陰少陰太陰六氣在下 是中之下而有氣之標也 本在上 標在下 故本標不同¹¹²⁾

③ 風熱濕火燥寒六氣 所謂本也 三陰三陽之氣爲標 如太陽以寒爲本 以熱爲標 痘反其本寒 得標陽之熱病 則不治其寒 而治其熱 故治反其本 得標之方¹¹³⁾

④ 氣有從本者 少陽太陰是也 少陽之氣惟火熱 太陰之氣惟陰濕 皆從本氣以爲生化也 氣有從標本者 少陰太陽是也 少陰本熱標陰 太陽本寒標熱 有寒熱陰陽之氣 故從本從標 以爲生化也 氣有不從標本者 陽明厥陰是也 兩陽合明 陽之極矣 無取乎燥 從中見太陰之氣 以爲生化 兩陰交盡 陰之極矣 無取乎風 從中見少陽之氣 以爲生化也¹¹⁴⁾

⑤ 承脈從病反之義 而推言百病之起 有

生于本氣者 有生于標氣者 有生于中見之氣者 因其所生 取而治之 是得其真 然取治之法 又有逆取而得者 有從取而得者 逆取而得則逆取 正爲順也 若不逆取而順 半爲逆也 故曰 知標與本 用之不殆 明知逆順 正行無間 卽此脈從病反之謂也¹¹⁵⁾

⑥ 未載

(8) 黃元御

① 六氣爲三陰三陽之本 是謂六元 元則本也¹¹⁶⁾

② 寒暑燥濕風火六氣 三陰三陽之本 故三陰三陽之上 六氣治之 少陽與厥陰爲表裏 陽明與太陰爲表裏 太陽與少陰爲表裏 三陰三陽之上 六氣之下 各見其所相表裏之氣 是謂中氣 中氣之上 六氣爲本 中氣之下 三陰三陽爲標 本標不同 故人氣之應其象亦異也¹¹⁷⁾

③ 痘與本反 故得標病 治與本反 故得標方¹¹⁸⁾

④ 未載

⑤ 痘生不同 從其所生而所取之者則病得 故取有逆從之殊 善取者 雖逆乎正 其實順也 不善取者 順乎正 其實逆也¹¹⁹⁾

⑥ 未載

(9) 張琦

① 未載

② 中見 謂表裏同氣 非在泉之義也 此肝膽相爲表裏 脾胃 腎膀胱 相爲表裏 風寒暑濕燥火 六氣爲本 燥氣合于濕 寒氣合于熱 風氣合于火 熱氣合于寒 火氣合于風 濕氣合于燥 以其未見則謂之中 陰陽生化 承制之義悉在乎此 見之下當作上 謂司天在上者也 三陰三陽爲標 六氣爲本 然有標本不同者 足太

109) 前揭書, p.720

110) 前揭書, p.720

111) 高士宗, 《黃帝素問直解》,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82, p.467

112) 前揭書, pp.486~487

113) 前揭書, p.675

114) 前揭書, p.677

115) 前揭書, p.678

116)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素問解說, 靈樞解說)》,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279

117) 前揭書, p.287

118) 前揭書, p.287

119) 前揭書, p.287

陽以寒水主令 手太陽之火從而化寒 手陽明以燥金主令 足陽明之土從而化燥 手少陽以相火主令 足少陽之木從而化火 足太陰之濕土主令 手太陰之金從而化濕 手少陰以君火主令 足少陰之水從而化火 足厥陰以風木主令 手厥陰之火從而化風 主令者標本同 從化者標本異 故氣之所應異其象也 是以「至真要大論」有從標從本從中之治¹²⁰⁾

③ 衍文¹²¹⁾

④ 少陽手足二經同氣 故皆從火 治足太陰以濕土主令 手太陰從而化氣 故太陰皆從濕治 手足少陰本爲熱 標爲陰 手足太陽本爲寒 標爲陰 故或從本 或從標 陽明以土而從化燥氣 故不從本之燥 亦不從標之陽 而從中見之太陰 厥陰之本爲風 標爲陰 故不從本之風 不從標之陰 而從中見之少陽 蓋治風必先治火 非謂厥陰之氣不從風化也 「六微旨大論」以三陰三陽爲標 風寒暑濕燥火六氣爲本 又有中見云云 极爲明晰 當參論之¹²²⁾

⑤ 本熱標寒 本寒標熱 不治其標而治其

本 故有以熱治熱 以寒治寒 外雖用逆 中乃順也 若不究其本而止据外之寒熱 則外雖似順而實逆矣¹²³⁾

⑥ 未載

【考察】

이상의 「天元紀大論」, 「六微旨大論」, 「至真要大論」에서 論한 標本에 대한 經文과 注釋가들의 見解를 살펴보면 諸家들 모두 「六微旨大論」에서 “少陽之上, 火氣治之, 中見厥陰, … 諸上主治, 所謂本也, 本之下, 中之見也, 見之下, 氣之標也”라 하여 風, 寒, 暑, 濕, 燥, 火 六氣는 本이 되고, 三陰三陽은 六氣의 標가 된다고 하였고, 標本외에 또 中氣가 있는데 中氣는 標의 三陰三陽과 表裏가 되는 三陰三陽을 말하였다. 즉 少陽과 厥陰, 陽明과 太陰, 太陽과 少陰이 각각 서로의 中氣가 된다. 이를 圖表化하면 [표 1] 과 같다.

[표 1] 標本中氣

三陰三陽 標本中氣	少陽	陽明	太陽	厥陰	少陰	太陰
本	火	燥	寒	風	熱	濕
中氣	厥陰	太陰	少陰	少陽	太陽	陽明
標	少陽	陽明	太陽	厥陰	少陰	太陰

「至真要大論」에서 “岐伯曰, 少陽太陰從本, 少陰太陽從本從標, 陽明厥陰不從標本, 從乎中也. 故從本者化生於本, 從標本者有標本之化, 從中者以中氣爲化也”라 하여 三陰

120) 張琦, 《素問釋義(近代中醫珍本集)》, 浙江省,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94, p.214~215

121) 前揭書, p.297

122) 前揭書, p.298

三陽이 標·本·中氣에 從化하는 理論을 提示하였는데, 그 까닭에 대하여 注釋가들의 見解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王冰은 “少陽之本火, 太陰之本濕, 本末同, 故從本也, 少陰之本熱, 其標陰, 太陽之本寒, 其標陽, 本末異, 故從本從標, 陽明之

123) 前揭書, p.299

中, 太陰, 厥陰之中, 少陽, 本末與中不同, 故不從標本, 從乎中也”라 하여 少陽의 本은 相火이고 標 또한 陽이며, 太陰의 本은 濕이고 標 또한 陰으로 그 本과 標의 性質이 서로 같으므로 本을 從하고, 少陰의 本은 热이나 標는 陰이고, 太陽의 本은 寒이나 標는 陽으로 그 本과 標의 性質이相反되므로 本을 從하거나 혹은 標를 從한다. 陽明의 中氣는 太陰이고, 厥陰의 中氣는 少陽으로 本末과 中氣가 다르므로 標本을 從하지 않고 中氣를 從한다고 하였다.

이상 王冰의 해설은 從本 및 從本從標하는 까닭에 대하여는 명석하나, 從中하는 까닭에 대하여는 미흡하다. 따라서 從本 및 從本從標에 대한 諸家들의 見解는 모두 王冰의 注釋을 따랐으나, 從中하는 까닭에 대하여는 새로운 注釋을 提出하였는데 대략 다음과 같다.

張介賓은 “陽明與太陰爲表裏, 故以太陰爲中氣, 而金從濕土之化, 厥陰與少陽爲表裏, 故以少陽爲中氣, 而木從相火之化, 是皆從乎中也”라 하여 陽明인 金은 中氣인 太陰인 濕土를 따라 化하고, 厥陰인 木은 中氣인 少陽인 相火를 따라 化한다고 하였다.

張志聰은 “蓋陽明司四時之秋令, 而太陰主四氣之清秋, 厥陰爲兩陰交盡, 陰盡而一陽始生, 是以陽明厥陰, 從中見之化也”라 하여 陽明은 四時의 秋令을 담당하고 太陰은 四氣의 清秋를 主한다. 厥陰은 兩陰이 交盡한 것인데 陰이 다하면 一陽이 始生한다. 이런 까닭으로 陽明과 厥陰은 中見之氣를 따라 化한다고 하였다. 이는 곧 陽明과 太陰의 關係를 每年 運氣六步의 關係로써 보면 四氣인 太陰濕土가 五氣인 陽明燥金과 相接하기 때문에 燥從濕化한다고 보았고, 厥陰과 少陽의 關係를 陰이 다하면 一陽이 生

하기 때문에 風從火化한다고 보았다고 할 수 있다.

高士宗은 張志聰의 見解를 더욱 敷衍하였다는데 즉 “兩陽合明, 陽之極矣, 無取乎燥, 從中見太陰之氣, 以爲生化, 兩陰交盡, 陰之極矣, 無取乎風, 從中見少陽之氣, 以爲生化也”라 하여 陽明은 兩陽이 合明하여 陽의 极이 되니 燥를 取하지 아니하고 中見인 太陰을 따라 生化하고, 厥陰은 兩陰이 交盡하여 陰의 极이 되니 風을 取하지 아니하고 中見인 少陽을 따라 生化한다고 하였다.

張琦는 “陽明以土而從化燥氣, 故不從本之燥, 亦不從標之陽, 而從中見之太陰, 厥陰之本爲風, 標爲陰, 故不從本之風, 不從標之陰, 而從中見之少陽, 蓋治風必先治火, 非謂厥陰之氣不從風化也”라 하여 陽明은 土로써 燥氣를 따라서 化한 것이므로 本의 燥와 標의 陽을 따르지 않고 中氣인 太陰을 따르는 것이고, 厥陰의 本은 風이요 標는 陰이므로 本의 風과 標의 陰을 따르지 않고 中氣인 少陽을 따르는데, 대개 風을 治療할 때는 반드시 먼저 火를 治療해야 하니 厥陰의 氣가 風化를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陽明과 厥陰이 從中하는 까닭에 대한 各 醫家들의 見解를 總括해보면 王冰과 張介賓은 本末과 中氣가 다르므로 中氣를 取한다고 했을 때 그 所以然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했으나, 張志聰과 高士宗은 陽極則生一陰, 陰極則生一陽하다는 觀點에서 中氣를 取한다고 하여, 그 소이연에 대한 이론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고 본다.

또한 張琦는 治療의 觀點에서 中氣를 取한다고 하여 中氣를 取하는 까닭을 더욱 확충했다고 할 수 있다. 즉 陽明은 燥하기 때문에 中氣인 太陰濕土를 取하여 燥의 지

나침을 防止하고, 厥陰은 風이 主하므로 中氣인 少陽相火를 治療하여 風의 지나침을 防止해야 하는 것으로 理解할 수 있다고 본다.

本篇에서 標本治療의 意義는 다음과 같다.

《素問·至真要大論》에 “百病之起，有生於本者，有生於標者，有生於中氣者，有取本而得者，有取標而得者，有取中氣而得者”라 하여 疾病이 生한 標·本·中氣에 근거하여 治療해야 함을 말했다.

즉 少陽과 太陰은 本을 따라 化하는데, 天地 六氣 또한 안으로 五臟에 合하는데 火氣는 膽에 通하고 濕氣는 脾에 合한다. 그러므로 火邪와 濕邪가 侵入하면 반드시 膽과 脾에 먼저 犯한다. 治病에 있어서도 病이 少陽에 있으면 그 本인 火를 따라 治療해야 하고 病이 太陰에 있으면 그 本인 濕을 따라 治療해야 한다.

太陽과 少陰은 本을 따르거나 或은 標를 따라 化하는데, 그 따르는 方向은 體內臟氣의 盛衰에 따른다. 즉 太陽經氣가 衰하면 本인 寒을 따르고 經氣가 盛하면 標인 热을 따라 化하고, 少陰經氣가 衰하면 標인 寒을 따르고 經氣가 盛하면 本인 热을 따라 化한다. 太陽에 病이 있을 경우 表寒證이 있으면 病이 本에서 生한 것임으로 그 本인 寒을 治療하고, 表熱證이 있으면 病이 標에서 生한 것임으로 그 標인 热을 治療해야 한다. 少陰에 病이 있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寒證이 있을 경우는 그 標를 따라 寒을 治療하고 热證이 나타날 경우는 그 本을 따라 热을 治療해야 한다.

陽明과 厥陰은 中氣를 따라 化하므로 風邪가 肝에 侵入하면 종종 風火가 相煽하는 疾病이 된다. 陽明病은 脾가 中虛하여

下陷할 때 濕이 太過하여 疾病이 發生하므로 中氣인 太陰을 따라 나타난 濕을 잘 治療해야 하고, 厥陰病은 中氣인 少陽을 따라 나타난 火를 잘 治療해야 한다.¹²⁴⁾

이러한 標·本·中氣 理論은 六淫이 人體 疾病 發生 및 發展에 影響을 주는 規律을 概括하는 것인데 人體 臟腑 機能活動은 四時 氣候의 不同에 따라 發生하는 相對的 差異 및 經氣의 盛衰變化 등이 標本中氣, 從化理論이다. 標本中氣, 從化理論을 把握하는 것은 곧 疾病의 變化를 豫測할 수 있으며 나아가 疾病 治療에 應用할 수 있는 重要한 理論이 된다고 하겠다.

5. 氣의 内外活動部位로서의 意味

氣의 内外活動部位로서의 意味는 『靈樞·師傳』에 나오는데, 그 原文과 이에 대한 代表의歷代注釋家의 見解는 다음과 같다.

「師傳 第二十九篇」

“岐伯曰 春夏先治其標 後治其本 秋冬先治其本 後治其標”^①

【各家注】

(1) 楊上善

① 本 謂根與本也 標 末也 方昭反 謂枝與葉也 春夏之時 萬物之氣上升 在標 秋冬之時 萬物之氣下流 在本 候病所在 以行療法 故春夏取標 秋冬取本也¹²⁵⁾

(2) 王冰：未載

(3) 馬蒔：未載

124) 楊力, 《中醫運氣學》,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5, pp.90~92, 120~121

125)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서울, 圖書出版鼎談, 1993, pp.3~4

(4) 吳崑 : 未載

(5) 張介賓

① 此言治有一定之法 有難以順其私欲而可爲假借者 故特舉標本之治以言其概耳 如春夏之氣達于外 則病亦在外 外者內之標 故先治其標 後治其本 秋冬之氣斂于內 則病亦在內 內者外之本 故先治其本 後治其標 一曰 春夏發生 宜先養氣以治標 秋冬收藏 宜先固精以治本 亦通¹²⁶⁾

(6) 張志聰 : 未載

(7) 高士宗 : 未載

(8) 黃元御

① 春夏先治其標 後治其本 陽氣發泄之時 多外熱而內寒也 秋冬先治其本 後治其標 陽氣收藏之時 多內熱而外寒也¹²⁷⁾

(9) 張琦 : 未載

【考察】

이상의 「師傳」에서 論한 標本에 대한 經文과 注釋가들의 見解를 살펴보면 “岐伯曰, 春夏先治其標, 後治其本, 秋冬先治其本, 後治其標”라는 經文에 근거하여 楊上善은 “春夏之時, 萬物之氣上升, 在標, 秋冬之時, 萬物之氣下流, 在本”이라 하여 春夏에는 萬物의 氣가 上升하므로 標에 있는 것이요 秋冬에는 萬物의 氣가 下流하므로 本에 있는 것이라고 하여 氣의 上下作用으로써 標本을 說明하였다. 張介賓은 “春夏之氣達于外, 則病亦在外, 外者內之標, 故先治其標, 後治其本, 秋冬之氣斂于內, 則病亦在內, 內者外之本, 故先治其本, 後治其標”라 하여 春夏의 氣는 外로 達하니 痘 또한 外에 있

126) 張介賓, 《張氏類經》, 서울, 成輔社, 1982, p.325

127)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靈樞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465

게 되는데 外는 內의 標가 되고, 秋冬의 氣는 內에 收斂하니 痘 또한 內에 있게 되는데 內는 外의 本이 된다라고 하여 氣의 內外的 中心活動舞臺로써 說明하였다. 黃元御는 “春夏先治其標, 後治其本, 陽氣發泄之時, 多外熱而內寒也. 秋冬先治其本, 後治其標, 陽氣收藏之時, 多內熱而外寒也”라 하여 春夏는 陽氣가 發泄하는 時期이니 外熱이 많고 內寒하고, 秋冬은 陽氣가 收藏하는 時期이니 內熱이 많고 外寒한다고 하여 發泄하는 體表와 收藏하는 體內로 標本을 說明하였다.

이상의 注釋가들은 모두 四時에 따라 氣의 功能部位로써 標本을 論하였는데 陽的인 경우 즉 上升하거나, 外部에 있거나, 發泄을 主할 때를 標로 보았고, 陰의인 경우 즉 下流하거나, 內部에 있거나, 收藏을 主할 때를 本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總括하건대 本篇에서 體表를 標라 하 고 體內를 本이라 한 까닭은 陽氣의 活動이 旺盛한 時期인 春夏에는 氣가 人體의 外部로 升達하므로 體表를 標라 한 것이고, 陽氣의 活動이 衰退하는 時期인 秋冬에는 氣가 內部로 收藏하므로 體內를 本이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本篇에서 標本의 意義는 다음과 같다.

春夏에는 陽氣의 活動이 旺盛한 時期이므로 氣가 人體의 外部로 升達하며 痘도 體表에 있으므로 外熱이 많고 內寒하므로 治療에 있어서는 發表, 發散시키는 方法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 秋冬에는 陽氣의 活動이 衰退하는 時期이므로 氣가 內部로 收藏하며 痘도 體內에 있으므로 內熱이 많고 外寒하므로 治療에 있어서도 藏精, 補氣하는 方法을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다. 本篇은 季節에 따라 治療를 달리해야 함을 말

하였다고 하겠다.

6. 十二經脈의 分布에 따른 四末과 頭面·胸腹部로서의 意味

十二經脈의 分布에 따른 四末과 頭面, 胸背部로서의 意味는 《靈樞·衛氣》에 나온는데, 그 原文과 이에 대한 代表的인 歷代 注釋家의 見解는 다음과 같다.

「衛氣 第五十二篇」

“然其分別陰陽 皆有標本虛實所離之處能別陰陽十二經者 知病之所生 侯虛實之所在者 能得病之高下 知六腑之氣街者 能知解結契紹於門戶 能知虛實之堅軟者 知補薦之所在 能知六經之標本者 可以無惑於天下”^①

“足太陽之本 在踝以上五寸中 標在兩絡命門 命門者 目也 足少陽之本 在竅陰之間 標在窓籠之前 窓籠者 耳也 足少陰之本 在內踝下上三寸中 標在背俞與舌下兩脈也 足厥陰之本 在行間上五寸所 標在背俞也 足陽明之本 在厲兑 標在人迎 頰挾頑頬也 足太陰之本 在中封前上四寸之中 標在背俞與舌本也 手太陽之本 在外踝之後 標在命門之上一寸也 手少陽之本 在小指次指之間上二寸 標在耳後上角下外眥也 手陽明之本 在肘骨中 上至別陽 標在顏下合鉗上也 手太陰之本 在寸口之中 標在腋內動也 手少陰之本 在銳骨之端 標在背俞也 手心主之本 在掌後兩筋之間二寸中 標在腋下下三寸也”^②

【各家注】

(1) 楊上善

① 夫陰陽之氣在於身也 卽有標有本 有虛有實 有所歷之處也 十二經脈有陰有陽 能知十二經脈標本所在 則知邪入病生所由也 三陰三陽 故曰六經也 標本則根條 知六經脈

根條 則天下皆同 所以不惑者也¹²⁸⁾

② 血氣所出 皆從藏府而起 今六經之本皆在四支 其標在掖肝輸以上 何也 然氣生雖從府藏爲根 末在四支 比天生物 流氣從天根成地也¹²⁹⁾

- (2) 王冰 : 未載
- (3) 馬蒔 : 未載
- (4) 吳崑 : 未載
- (5) 張介賓

① 陰陽標本 各有所在 卽虛實所離之處也 標本 本末也 知本知末 則雖天下之廣 何所不知 故可無惑于天下¹³⁰⁾

- (2) 未載
- (6) 張志聰

① 蓋以經脈所起之處爲本 所出之處爲標
② 此分別十二經脈之本 出於手足之腕踝其標在於胸腹頭氣之街 標者 猶樹之梢杪 紗絕而出於絡外之徑路也 本者 猶木之根幹 經脈之血氣 從此而出也

按十二經脈之終始 出於井 潤於榮 注於俞 行於經 入於合 而內屬於臟腑 此臟腑之十二經脈也 十二經脈之標本 乃經脈之支別故曰此氣之大路也 路絕則徑通 蓋血氣從絡脈之起處爲本 盡處爲標 而出於氣街也 然支絡內經脈之分派 故曰‘足太陽之本 在踝以上五寸中 足少陰之本 在內踝下上三寸中’ 蓋以本支所分之處爲本 而不定在於經俞之穴會也 至於標 在頭氣之街者 止之於腦 如太陽之在目內 少陽之在耳中 陽明之在頑頬 乃三陽之絡脈 絶於頭腦之中 亦非頭面之穴會也 經脈之內屬臟腑 外絡形身 應神機之出入 血氣之從絡脈 出於氣街 運行於膚表 應精氣之升絳

128)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서울, 圖書出版鼎談, 1993, p.156

129) 前揭書, p.157

130) 張介賓, 《張氏類經》, 서울, 成輔社, 1982, p.241

出入廢則神機化滅 升降息則氣立孤危也

- (7) 高士宗 : 未載
- (8) 黃元御 : 未載
- (9) 張琦 : 未載

【考察】

이상의 「衛氣」에서 論한 標本에 대한 經文과 注釋가들의 見解를 살펴보면 본 十二經脈 標本에 대한 經文에 근거하여 楊上善은 “標本則根條”, “六經之本皆在四支, 其標在腋肝輸以上”이라 하여 十二經脈의 標本은 六經脈의 根條가 되는데, 그 本은 四肢에 있고, 그 標는 手經에서는 腋關節 이상에 있고 足經에서는 肝臟 이상에 있다고 하였다. 張志聰은 “經脈所起之處爲本, 所出之處爲標”라 하여 十二經脈의 脈氣가 일어나는 곳을 本으로 보고 出하는 곳을 標로 보았는데, 여기서 所起는 經脈이 시작하는 井穴의 意味가 있고 所出은 經脈이 自經을 다하고 他經으로 나가는 外門의 意味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此分別十二經脈之本, 出於手足之腕踝 其標在於胸腹頭氣之街”라

하여 十二經脈의 本은 手足의 腕踝에서 일어나고 그 標는 頭面, 胸腹部의 氣街에 있음을 구분한 것이라 하였다. 十二經脈에 있어서의 標本은 四肢末端部位의 輸穴을 本이라 하였고 頭面, 胸腹, 背部의 氣가 모이는 終處를 標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의 標本은 《素問·陰陽離合論》과 《靈樞·根結》에서 말한 根과 結의 意味와相通하는데 즉 根은 本의 意味이고, 標는 結의 意味에 해당한다고 보겠다.

本篇은 《靈樞·根結》과 比較해 볼 때 내용上 약간 差異가 있는데 經穴部位 및 穴名이 分明하게 明示되지 않았으므로 根結理論의 原始理論으로 여겨진다.

標는 末梢, 本은 根本을 뜻하니 이를 解剖學의 位置로 볼 때 上下로 區分하여 보면 標는 上의 位置인 人體의 頭部, 面部, 胸腹部, 背部에, 本은 下의 位置인 四肢末端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十二經脈의 標本部位와 足六經의 根結部位를 圖表化하면 [표 2], [표 3] 과 같다.

[표 2] 十二經脈의 標本部位

經名	本部		標部	
	部位	相應穴位	部位	相應穴位
足太陽	踝上五寸中	跗陽	兩絡命門	睛明
足少陽	竅陰之間	竅陰	窓籠之煎	聽宮
足陽明	厲兌	厲兌	人迎, 頰, 挾頤顙	人迎
手太陽	外踝之後	養老	命門上一寸	攢竹
手少陽	手次指間上二寸	液門	耳後上角下外眞	角孫, 絲竹空
手陽明	肘骨中上至別陽	曲池, 臂臑	顏下, 合	地倉, 迎香
手太陰	寸口之中	太淵	腋內動脈	天府
手厥陰	掌後兩筋間二寸中	內關	腋下三寸	天池
手少陰	銳骨之端	神門	背俞	心俞
足太陰	中封上四寸中	三陰交	背俞與舌本	脾俞, 廉泉
足厥陰	行間上五寸所	中封	背俞	肝俞
足少陰	內踝下上三寸中	復溜, 交信	背俞與舌下兩脈	腎俞, 金津, 玉液

[표 3] 足六經의 根結部位

經名	根部		結部	
	部位	近位의 臟穴	部位	穴位
足太陽	足小趾 外端	至陰	命門	睛明
足少陽	足四趾 外端	竅陰	窓龍	聽宮
足陽明	足二趾 外端	厲兌	大鉗耳	頭維
足太陰	足一趾 內端	隱白	太倉	中脘
足少陰	足低部 中心	湧泉	廉泉	廉泉
足厥陰	足一趾上	大敦	玉英	玉堂

本은 經氣의 作用이 出하는 곳이며 標는 經氣의 影響이 미치는 곳이다.

총괄하건대 「衛氣」에서 標本은 本은 經氣가 일어나는 四肢末端의 經穴 즉 根結에서의 根穴部位를 指稱하고, 標는 經氣가 끝나는 頭部, 面部, 胸腹部, 背部의 經穴 즉 根結에서의 結穴을 指稱한다고 할 수 있다.

本篇에서 標本治療의 意義는 다음과 같다.

病의 治療에 있어서 四肢末端과 頭面, 몸통, 臟腑間은 經氣가 相互出入하여 連繫하고 있다. 그러므로 四肢末端에 있는 經穴을 取하여 標의 頭面, 胸腹, 背部의 疾患을 治療할 수도 있으며, 反面에 頭面, 胸腹, 背部에 있는 標의 經穴을 取하여 四肢末端의 疾病을 治療할 수 있다. 이는 遠隔取穴法으로 '上病下取, 下病上取'하는 原理가 된다.

III - 2. 時·空間的 觀點으로 分類한 標本의 意味

이상 6개 標本의 구체적인 意味를 時·空間的 觀點으로 區分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時間的 觀點

《素問·移精變氣論》과 「湯液醪醴論」에서의 標本은 本이 되는 痘이 먼저 있은 이후에 標가 되는 醫或은 治療에 사용하는 鍼石, 湯藥 등이 뒤에 따르기 때문에 時間的인 先後의 관점에서 표본을 결정했다고 할 수 있다.

《素問·標本病傳論》에서도 發生한 先病을 本이라고 하였고, 뒤에 發生하는 痘變, 痘證을 標라 하였으므로 이 또한 時間的 概念의 표본으로 볼 수 있다.

2. 空間的 觀點

《素問·水熱穴論》에서의 標本은 空間的 概念으로 볼 수 있는데 《素問·瘡論》에서 "肺者, 藏之長也, 為心之蓋也" 131) 라 했고, 《靈樞·九鍼》에서 "肺者, 五臟六腑之蓋也" 라 하여 肺는 五臟六腑의 華蓋가 되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는 臟器가 되고, 腎은 臟器 중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는 臟器가 되므로 여기서의 標本은 空間的인 上下의 관점에서 標本을 구분하였다고 할 수 있다.

131) 王冰, 《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272

《靈樞·師傳》에서의 標本 또한 季節에 따른 氣의 內外活動部位로써 말하였으므로 空間의内外의 관점에서 標本을 구분하였다라고 할 수 있다.

《靈樞·衛氣》에서의 標本 또한 十二經脈의 分布에 따른 空間의 概念으로 볼 수 있는데, 즉 本은 手足末端에 있는 穴을 指稱하고 標는 胸背部 및 頭面部의 穴을 指稱하고 있기 때문이다.

3. 時空間的 觀點

《素問·天元紀大論》, 「六微旨大論」, 「至真要大論」에서의 標本은 時空間의 概念으로 볼 수 있다. 즉 空間의인 意味는 「天元紀大論」에서 “厥陰之上, 風氣主之, 少陰之上, 熱氣主之, 太陰之上, 濕氣主之, 少陽之上, 相火主之, 陽明之上, 燥氣主之, 太陽之上, 寒氣主之”라 하여 本인 六氣는 上部에 있고 標인 三陰三陽은 下부에 있다고 할 수 있어서 空間의 觀點으로 볼 수 있으며, 時間의인 意味는 自然界는 主氣와 客氣가 끊임없이 反復 運行하고 있으며 人體 内에서는 五臟六腑와 經絡에 氣血循環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時間의 觀點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運氣에 있어서 標本은 時·空間의 觀點으로 把握할 수 있다.

III - 3. 기타 注釋家들의 注釋에 의한 標本의 意味

《內經》의 經文을 통해서 본 標本의 6 가지의 意味 이외에 注釋家들의 注釋에 의해서 밝혀진 標本에 대하여 言及하면 大略 다음과 같다.

1. 藥物에 있어서 根幹과 枝葉으로써의 意味

張志聰은 《素問·移精變氣論》에서 “病有標本, 草有本末, 蘇荄爲本, 傍枝爲末”이라 하여 根莖은 本이 되고 枝葉은 末이 된다고 하여 標本의 意味를 藥物에 있어서 根과 枝葉으로 擴充하였다. 이는 標本의 語源을 取하여 說明하였다라고 할 수 있다.

2. 痘에 있어서 五臟과 經脈, 筋骨로써의 意味

張志聰은 《素問·移精變氣論》에서 “是五藏爲本, 而經俞筋骨爲標也”라 하였고, 張琦도 또한 “藏府爲本 經脈爲標”라 하여 體內에 있는 臟腑를 本으로 보았고, 體外에 있는 經脈을 標로 보았다. 이는 人體活動의 主體가 되는 五臟을 本으로 삼았다고 하겠다.

3. 客氣와 正氣로써의 意味

《素問·標本病傳論》에서 高士宗은 “人身正氣調和, 外感風熱濕火燥寒之氣, 謂之客氣, 則以外感客氣爲本, 三陽三陰正氣爲標, 若正氣先病, 因病而生風熱濕火燥寒之氣, 謂之同氣, 則以三陽三陰正氣爲本, 所生同氣爲標”라 하여 사람의 正氣가 調和로 울 경우는 外邪 客氣가 本이 되고 正氣는 標가 된다고 하였으나, 反面에 正氣가 病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正氣가 本이 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過極한 六氣는 標가 된다고 하였다. 이는 病을 일으키는 主體를 중시하여 本으로 삼았다고 하겠다.

4. 正氣와 病氣로써의 意味

黃元御는 “人有客氣有主氣, 主爲本, 客爲標”라 하였고, 張琦는 “正氣爲本, 病氣爲

標”라 하여 主氣인 正氣를 本으로 客氣인 痘氣를 標로 보았다. 이는 人體內 正氣를 중시하여 本으로 삼았다고 하겠다.

IV. 結 論

《黃帝內經》에는 標本에 관하여 論한 篇이 모두 10篇인데 그 意味는 6가지로 대별할 수 있었고, 각기 標本으로 分開하여 命名한 까닭, 實用적 意義, 및 經外의 의미로써 주석가들이 제출한 표본 등에 대하여 研究한 바 大略 다음과 같았다.

1. 《素問·移精變氣論》과 「湯液醪醴論」에서는 本은 病을 지칭하였고 標는 工(醫)을 지칭하였다. 그 이유는 病이 먼저 있는 이후에 工의 治療가 뒤에 베풀어지기 때문에 病을 本으로 삼았고 工을 標로 삼았다.

本篇에서의 意義는 治病의 得失은 病者와 醫師간의 相得과 不相得에 있음을 강조한 데 있다.

2. 《素問·水熱穴論》에서는 本은 腎을 지칭하였고, 標는 肺를 지칭하였다. 그 이유는 水는 腎이 主하기 때문에 本이 되고, 肺는 氣化作用을 主宰하여 水가 行하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標라 하였다.

本篇에서의 意義는 水腫病은 主로 아래로는 腹腫과 腹大的 證이 나타나고, 위로는 喘呼와 不得臥하는 證이 나타나므로 治療에 있어서 腎과 肺를 중시한 데 있다.

3. 《素問·標本病傳論》에서는 本은 先病證을 지칭하였고, 標는 後病證을 지칭하였다. 그 이유는 病의 傳變에 있어서 病이 먼저 이루어진 것을 本으로 보고 病이 뒤에 생긴 것을 標로 보았다.

本篇에서의 意義는 先病과 後病에 있어

서一般的으로 本을 먼저 治療하고 標를 後에 治療하는 것이 原則이지만, 中滿이나 小便不利는 위급한 경우이므로 ‘急則治標, 緩則治本’의 原理에 따라 비록 標病이 되더라도 他病보다 먼저 治療해야 함을 제시한 데 있다.

4. 《素問·天元紀大論》, 「六微旨大論」, 「至真要大論」에서는 本은 風, 寒, 暑, 濕, 燥, 火 즉 六氣를 지칭하였고, 標는 三陰三陽을 지칭하였다. 그 이유는 六氣가 氣候變化의 主體가 되기 때문에 六氣가 本이 되고, 三陰三陽이 標가 된다고 하겠다.

本篇에서의 意義는 標·本·中氣의 從化理論을 治療에 應用하는 것인 즉 少陽과 太陰은 本을 從하므로 火와 濕을 잘 治療해야 하며, 少陰과 太陽은 本을 從하거나 標를 從하므로 痘에 있는 標本의 盛衰에 따라 或은 寒을 治療하거나 或은 热을 治療해야 하며, 陽明과 厥陰은 標本을 從하지 않고 中氣를 從하므로 陽明은 그 中氣인 濕을 잘 治療해야 하고 厥陰은 그 中氣인 火를 잘 治療해야 함을 제시한 데 있다.

5. 《靈樞·師傳》에서는 本은 體內를 지칭하였고, 標는 體表를 지칭하였다. 그 이유는 五臟과 皮膚 經絡을 비교해 볼 때 五臟이 人體活動의 主體가 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本篇에서의 意義는 春夏秋冬의 疾病에 있어서 春夏에는 氣가 人體의 外部로 升達하므로 治療에 있어서는 發表, 發散시키는 方法을 고려해야 하며, 秋冬에는 氣가 内部로 收藏하므로 治療에 있어서도 藏精, 補氣하는 方法을 고려해야 함을 제시한 데 있다.

6. 《靈樞·衛氣》에서는 本은 四肢末端의 經穴을 지칭하였고, 標는 頭面, 胸腹, 背

部의 經穴을 지칭하였다. 그 이유는 經脈所起之處를 本으로 보았고, 所出之處를 標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靈樞·根結篇》의 根結의 의미와 相通한다고 할 수 있다.

本篇에서의 意義는 本에 該當하는 四肢末端의 經穴을 取하여 頭面, 胸腹, 背部의 痘을 治療할 수 있고 反面에 頭面, 胸腹, 背部에 있는 標의 經穴을 取하여 四肢末端의 痘을 治療할 수 있는 遠隔取穴法으로 '上病下取, 下病上取'하는 原理를 提供한데 있다.

이상 6가지 구체적인 實象에 標本의 의미를 부여한 까닭을 고찰해 볼 때, 先·後로 발생되는 時間의 관점 및 上·下, 内·外 등 空間의 관점, 그리고 主動의이냐, 副次의이냐는 관점에서 分개하였으며 이는 곧 標本의 語源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7. 《內經》 이외에 注釋家들에 의한 標本의 意味는 다음과 같았다.

(1) 張志聰은 藥物에 있어서 根과 枝葉을 표본으로 나누어 보았다.

(2) 張志聰과 張琦는 五臟과 經脈을 표본으로 나누어 보았다.

(3) 高士宗은 正氣와 客氣를 표본으로 나누었는데 사람의 正氣가 調和로울 경우는 客氣를 本으로 正氣를 標로 보았으나, 反面에 正氣가 痘의 원인이 될 경우는 正氣를 本으로 이로 생긴 客氣 六淫을 標로 보았다.

(4) 黃元御와 張琦는 正氣를 本으로 痘氣를 標로 보았다.

參考文獻

1. 김완희·김광중, 《臟腑學의 이론과 임상》, 서울, 一中社, 1996
2. 成百曉, 《懸吐完譯 大學》, 中庸集注,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1
3. 李相玉, 《新完釋 管子》, 서울, 明文堂, 1985
4. 崔容泰 外,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8
5. 高士宗, 《黃帝素問直解》,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82
6. 郭靄春, 《黃帝內經辭典》, 서울, 一中社, 1992
7.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서울, 大星文化社, 1994
8. 楊力, 《中醫運氣學》,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5
9.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3
10. 吳崑, 《黃帝內經素問吳注評釋》,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6
11. 王琦, 《黃帝內經素問今釋》, 서울, 成輔社, 1983
12. 王冰, 《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13. 劉文典, 《淮南子集解》, 台北, 文史哲出版社, 1985
14. 張介賓, 《張氏類經》, 서울, 成輔社, 1982
15. 張琦, 《素問釋義(近代中醫珍本集)》, 浙江省,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94
16. 張仲景, 《金櫃要略精解》, 大邱, 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社, 1986
17. 張志聰, 《素問集註》, 서울, 大星文化社, 1994
18. 許慎, 《說文解字》, 香港, 中華書局, 1985
19.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素問縣解, 靈樞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